



▲사군자(강사 변영혜) 수업중인 수강생들

여름을 잇은 미술아카데미

7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S-미술아카데미의 교육 열기는 뜨겁다. 더위를 잇은 채 붓을 든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학구열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온 힘을 다해 지도하는 전문 강사진의 열정이 한데 모여 아틀리에를 빛내고 있다. 이번 여름,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 플랫폼이 주관하는 ‘2026 S-미술아카데미 여름학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화와 드로잉, 디지털아트, 전통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실기 중심의 전문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준식)가 후원하는 S-미술아카데미는 매 학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작가와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단순 취미교육을 넘어 개인의 표현 역량과 창작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어, 미술 입문자부터 심화 창작을 원하는 수강생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여름학기 역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기와 이론, 작품 제작과 발표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수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학기에는 디지털 드로잉과 현대수묵화, 프레스코 템페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9개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S-미술아카데미의 가장 큰 강점은 1:1 맞춤 지도이다. 일방적인 시연을 넘어 수강생의 개성과 숙련도에 맞춘 섬세한 피드백이 매시간 이루어진다. 또한 공익사업의 취지에 맞게 배움을 원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도 있다. 이러한 맞춤형 지도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수업 덕분에 참여 수강생들의 강사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가 높다. 다가오는 가을학기(9~12월)는 15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수강문의 02-555-1946**



‘그림속 여행’ 8월 개최

본회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아트스페이스 쉼리아에서 ‘그림속 여행’을 개최한다. 본회와 MOU를 맺은 아트스페이스 쉼리아(대표 박수현)의 협찬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본회가 주최한 지난 4월의 일본 나오시마 미술여행과 5월의 세종시 여행에서 얻은 예술적 영감을 모아 개최하는 미술여행전이다. 이번 미술여행전은 2024 이시동시-속초 및 충주미술여행전, ‘2024 그림속 화원-평창 허브나라여행전’(▲위사진), 2025 이시동시-백제미술여행전에 이어 네 번째이다.



‘마이컬렉션’ 8월 개최

본회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소장품전 ‘2026 마이컬렉션’을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 PaL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총동창회가 후원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며 본회와 MOU를 맺은 갤러리 PaL(대표 이영선)의 협찬으로 개최된다. 본회는 전시를 통해 서울대 동문들이 소장한 작품 중 관리나 보관이 어려운 작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새 보금자리를 찾아줄 예정이다. 이번 마이컬렉션은 2023년(한전갤러리), 2025년(한전갤러리/▲위사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서울대 동문 및 가족은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참가신청(02-555-1946)**



한울회 제50회 정기전

‘제50회 한울회정기전’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6월 10일 열린 개막식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과 유인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모교 정의철 학장, 서명덕 전 상명대 총장 등 많은 내빈과 참여작가들이 참석했다. 올해 전시는 한울회(회장 안말환)가 걸어온 반세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로 회원 72명의 작품과 함께 지난 46년의 시간동안 50회의 역사를 담은 도록 자료가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한울회는 ‘함께 하는 큰 울타리’라는 이름 아래 1980년 관훈미술관에서의 첫 전시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 동문들이 예술로 마음을 나누며 이어온 전통 있는 예술공동체이다. 오랜 시간을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창작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



회장동정



한울회 정기전 참석

본회 권영걸 회장은 지난 6월 10일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0회 한울회 정기전’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 50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여성 원로, 중진, 신진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공을 넘나드는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권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울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삶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치열함의 또 다른 모습이며, 늘 깨어 있음의 결과인 것이다. 그들의 작품을 보노라면 흐릿함 속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작품에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진지함과 단단한 구조이다"고 말했다.

황창배작가 25주기 추모전 참석



권영걸(황창배문화재단 이사장) 회장은 지난 6월 10일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린 황창배(66회화/1947~2001) 동문의 25주기를 추모하는 ‘제3회 황창배를 기억하다’전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권회장은 "황창배 선생은 우리 시대의 예술 언어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예술가였다"라며 "한국화라는 이름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고, 동양과 서양, 구상과 추상, 회화와 서예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들었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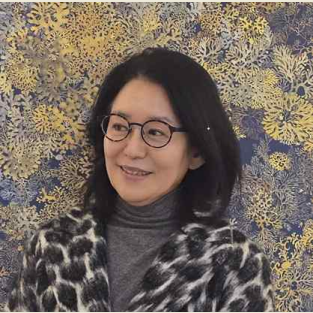


세종공동캠퍼스 방문

권영걸(세종시지방시대위원장) 회장은 지난 6월 22일 세종공동캠퍼스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세종시지방시대위원과 세종지역산업진흥원, 세종공동캠퍼스, 지방시대지원단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권영걸 세종시지방시대위원장(세종연구원장)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세종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 공공정책 모델, 인공지능 행정혁신 실증캠퍼스로 발전할 것"이라며 "균형성장을 견인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인사말

채혜선(82공예) / 제25대 상임부회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제25대 동창회 상임부회장을 맡게 된 채혜선입니다. 전임 이민주 부회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간 동창회가 활발하게 유지될수 있었습니다. 제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걱정도 되지만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회의 존재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관악캠퍼스의 행복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기대도 많고 보람도 있었던 학창시절이 지난후 동창회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7년전 동창회 부회장을 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되었고 선후배들에게 어떤 동창회가 되어야할까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미대 동창회는 타 단과대학과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미대 특성상 예술가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협업할수있는 소중한 네트워크장이 되어야합니다. 특히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과 나누는 멘토링프로그램이나 선후배들의 전시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합니다. 그간의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로 많은 전시와 장학금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25대 동창회도 그간의 활동을 이어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세나(01서양) / 제25대 사무국장



항상 처음은 설레고 떨리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께 서울대미대동창회 제25대 신임 사무국장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 7년간 권영걸 회장님을 중심으로 황현수, 이민주, 김홍규 상임부회장님, 그리고 민수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후배님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동창회는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일궈온 소중한 전통과 업적을 이어받아, 앞으로 저 또한 선후배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잇는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소통'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힘으로 동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깊이 있는 경험과 후배님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장을 넓혀가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맡은 책임의 무게를 늘 마음에 새기며, 예술 안에서 함께 웃고 고민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 인사말

이민주(76회화) / 제23.24대 상임부회장



사랑하는 동문님들께
5년간 상임부회장의 임기를 마치며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7년전, 권영걸 회장님의 큰 계획으로 시작된 배는 저를 포함한 세명의 상임부회장님(황현수, 김홍규)과 민수정 사무국장님 그리고 많은 간사님들을 싣고 출범했지요.

어려운 코로나시절을 겪으면서도 3천여 명이 수록된 '서울대 미술인'이 발간되었고 크고 작은 전시회와 이뉴스 발간 및 S-미술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와 동문을 위한 공익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새로운 팀을 위해 하선하였지만 동창회를 위한 사랑은 지속될 것입니다. 좀더 젊어진 새 임원이신 채혜선 신임 상임부회장님과 배세나 신임 사무국장님께 큰 기대를 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후원회와 함께 동창회가 큰 발전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민수정(82회화) / 제23.24대 사무국장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께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 5월 말로 사무국장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동문 여러분 덕분에 참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반갑게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여행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동창회의 여러 사업과 행사, 특히 E-NEWS와 S-미술 아카데미를 위해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내려놓지만, 동창회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만나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좋은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작품 활동과 일상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윤주(17디자인) / 이뉴스 편집주임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전 편집주임 백윤주입니다.

지난 6월을 끝으로 동창회와의 소중한 인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news를 통해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전하고, 동창회의 다양한 소식을 기록하며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큰 배움이자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E-news 기사 작성과 편집, 동창회 전시 디자인, 동문 전시 광고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맡으며 동창회의 이야기를 글과 이미지로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동문 한 분 한 분의 작품과 삶을 기록하고 시각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서울대미대동창회가 이어온 깊은 전통과 공동체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글과 디자인이었지만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해 주신 권영걸 회장님과, 황현수 상임부회장님, 이민주 상임부회장님, 민수정 사무국장님 그리고 취재와 인터뷰, 전시와 행사 준비에 기여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E-news는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동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잇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만, 서울대미대동창회가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과 교류 속에서 더 많은 동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김자민(19동양) / 이뉴스 편집인



저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뉴스 편집을 맡았던 김자민입니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동문들의 전시와 작업, 연구와 활동을 찾고 정리하며 기사를 쓰고 읽는 것이 정보를 주고받는 일을 넘어 동문들의 삶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뉴스 팀에서 일하며 많은 동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업을 지속해 나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작업은 때때로 외로운 일이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결과보다 긴 과정이 더 많은 일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응원이 되곤 합니다.

저에게 기사를 쓴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현재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고, 그 기록을 통해 저 역시 힘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작업과 삶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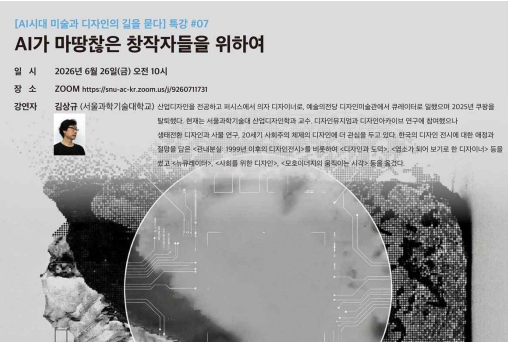
모교소식



1학기 과제전 개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학장 정의철)이 2026학년도 1학기 과제전을 개최했다. 동양화과 과제전은 지난 6월 4~7일 서울대 50~52동에서, 서양화과는 6월 11~14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조소과, 공예과, 영상매체예술전공은 6월 25~28일 50~52동과 220동에서 열렸다. 조소과는 입체와 공간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 조각 및 설치 작품을 선보였고, 공예과는 금속·도자·섬유·목공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영상매체예술전공은 영상, 사운드, 미디어 설치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통해 현대 미술의 확장된 가능성을 제시했다. 디자인과 과제전은 5월 29일~6월 25일 74동에서 총 6차에 걸쳐 열려 디자인을 통해 사회와 기술,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창의적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미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생들의 1학년 과제전은 6월 18~21일 50~52동과 220동에서 개최됐다. 기초조형교육과정에서 제작된 다양한 과제 작품들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정신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가 마땅찮은 창작자들을 위하여’ 특강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는 <SNU Art & Design 10-10 Project> <BK21four DESIGN 사업단>과 모교 80주년, 조형연구소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 26일 AI 시대에 미술과 디자인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강연 ‘AI가 마땅찮은 창작자들을 위하여’을 진행했다. 강연자 김상규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와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디자인 아카이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생회 6월 행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이음]이 학우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더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틀간 기말고사 간식 행사를 열었다. 루투스 음료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간식을 준비해 학우들과 응원의 마음을 나누었다. 또한 미술대학의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인 ‘미대 시네마 나잇’을 시작했다. 지난 6월 19일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첫 상영회를 개최했으며, 첫 상영작으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함께 감상했다. 미대 시네마 나잇은 앞으로도 격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손예은(24동양) 학생회장은 “이음은 앞으로도 가을축제, ‘미대인의 밤’ 등 미술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회 활동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평일 10~17시

2026 여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6.8 ~ 8.31 *공휴일 휴강 (보강 진행)

월	화	수	목	금
오전 10:00 - 13:00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 인물창작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고급과정 조명식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 창작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ONE DAY CLASS 7.25(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향
오후 14:00 - 17:00 자유 크로키 누드 종강 강사 없음	아크릴화 구상에서 추상까지 정일영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접수 기간
수시 신청

접수 방법
접수: 010-8605-8065 문자
입금: 301-0252-4434-51농협
권영결(서울대미술대학장회)

수강 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36만원 (12회)

프레스코 15만원 (1회)
* 재료비 포함

강좌/강사/학발 안내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AI Agent Challenge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네이버 커넥트재단(이사장 공기중)이 지난 5월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AI 교육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강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서울대는 전국 거점 국립대와 구축해 온 지역 인재 네트워크를,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현장에서 검증한 AI·SW 교육 운영 경험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프로그램 공동 설계·운영에 더해 연구·학술 분야 협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의 첫 결실은 ‘AI Agent Challenge’다. 서울대 대학연대 지역인재양성 사업단과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학생 200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에이전트를 고안하고, 실제 구축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팀네이버 개발자·기획자가 멘토로 붙어 피드백과 특강을 제공해 학생들의 실무 감각을 키운다.

SNU 그랜드퀘스트 포럼



‘2026 SNU 그랜드퀘스트(Grand Quest) 포럼’이 지난 6월 18일 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서 개최됐다. 그랜드퀘스트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와 인류가 직면한 난제 가운데 인류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질문을 발굴하고 탐구하는 연구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SNU 그랜드퀘스트 워크’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가 향후 도전할 여섯 개의 그랜드퀘스트를 공개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홍림 총장은 개회사에서 “서울대가 개교 80주년을 맞은 만큼 대학의 역할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라며 “그랜드퀘스트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교수사칭 피싱메일 학내유포

최근 서울대 구성원 대상으로 교수를 사칭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정보화본부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교수 이름과 소속을 도용해 실제처럼 위장한 뒤, 답장을 유도한다. 사칭 메일은 학내 홈페이지나 연구실 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 사진을 무단 도용하기 때문에 수신자가 실제 교수 메일로 오인하기 쉽다. 수신자가 답장하면 상품권 구매, 금전 송금, 개인 정보 제공 등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화본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보안 안내와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 로스쿨, 자교출신 61.8%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는 총 152명이 입학한 가운데, 상경계열 출신이 35.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교 출신은 61.8%였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이 공지한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총 152명 중

일반전형은 141명, 특별전형은 11명이 입학했다. 출신교는 학사 학위급 13개 대학 출신이 입학했다. 이 중 서울대가 94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23명(15.1%), 연세대 18명(11.8%) 순이었다. 입학생 중 남성은 78명으로 51.3%, 여성 74명으로(48.7%)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심포지엄 ‘새로운 시대의 미술관’

서울대미술관(관장 김형숙)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9일 국제심포지엄 ‘새로운 시대의 미술관’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미술관의 역할을 다시 묻고, 관객과 미술관이 맺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교 정의철 학장은 축사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생각을 이어가는 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미술관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토론하는 살아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연 심포지엄은 △오늘날 미술관의 역할 △관객 참여형 미술관 △새로운 시대의 미술관 등에 대해 다루며 새로운 시대 대학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확장된 미술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 구성원에 ChatGPT Edu 도입



서울대가 지난 6월부터 교수·학생·직원 등 전 구성원에게 ChatGPT Edu를 정식 제공했다. ChatGPT Edu는 교육기관 전용 생성형 AI로, 사용자의 입·출력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높은 보안 환경이 특징이다. 서울대는 공동연구·수업·에이전트 개발 지원과 AI 코딩툴 Codex, OpenAI API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높은 구독 비용으로 고급 AI를 이용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AI 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관악사 재건축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921~924동이 2027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1단계 재건축에 들어간다. 1단계 재건축은 2030년에 끝나고, 이후 925동과 926동을 대상으로 2단계 재건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건축에 따라 921~924동에 살고 있는 사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퇴거해야 한다. 921~924동에서 퇴거하게 될 학부 남학생 700여 명 중 400여 명은 각각 200여 명씩 학부 여학생이 거주하는 925동과 대학원생활관 공실에 수용될 계획이다.

중앙도서관, 신용하문고 기념전



중앙도서관 본관 4층 SNU 헤리티지 라이브러리에서 ‘진리는 나의 빛: 화양 신용하의 학문과 장서’ 기념전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념전은 한국 사회학의 거장 화양 신용하 선생의 학술 업적과 기증 문헌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신용하의 생애 ▲독도 연구 활동 ▲신용하문고의 서양 고문헌 등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화양(禾陽) 신용하(57사회) 동문은 한국사회사, 한국사회사상사, 근대사회의 형성, 민족운동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고 한국 사회가 주체적으로 근대사회를 형성한 역사적 과정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총동창회소식



서울대종합운동장 환경개선에 10억원 지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준식)가 서울대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및 구성원 복지증진을 위해 10억원을 쾌척했다. 이준식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유홍림 총장과 기부 협약식을 가지고, “학업은 물론 스포츠·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들은 사회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대학 시절 소중한 기억들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쾌적한 캠퍼스에서 성장하고 꿈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서울대 종합운동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과 현대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설 통일성을 높이고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휴게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개교80주년기념 나눔골프대회



총동창회가 지난 6월 9일 용인 블루원CC에서 개최한 ‘개교 80주년 기념 나눔 골프대회’에는 150여 명이 참가해 10억 4000여 만원의 발전기금을 모았다. 김종섭(66사회사업) 명예회장이 10억원 기부를 약속했으며, 서병륜(69농공) 관악경제인회장 · 박준희(SPARC 20기) 아이넷방송 회장도 각 1000만원 기부를 약속했다. 단체 우승한 치대동창회도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준식(72기계) 총동창회장은 “오늘 골프대회는 누가 잘 치고 못 치는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화합하는 자리”라며 “이러한 나눔은 동창회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의 참여가 총동창회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동문 바둑축제

총동창회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제22회 동문 바둑축제’가 지난 7월 5일 관악캠퍼스 제3식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 11개 팀 33명, 개인전 88명 등 총 121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선수로 출전했다. 재학생 참가자는 28명에 달했다. 이준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 바둑축제는 승부의 세계를 넘어 동문들이 함께 화합하고 교류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미대 기우회 홍순모(68조소), 이길원(69회화), 김종선(74회화) 동문이 단체전에 참가했으나 아쉽게도 6위에 그쳤다.

피아노기증 학생회관에 배치



총동창회는 최근 김종섭(66사회사업/삼익악기 회장) 명예회장이 기증한 자일러 그랜드 피아노 2대를 서울대에 전달했다. 대당 3000만원 상당의 피아노는 새 단장한 학생회관 2층 메인 라운지와 3층 동아리 연습실에 배치됐다. 지난 4월 27일 리노베이션 개관식을 갖은 학생회관은 ▲외관 ▲2층 라운지 ▲동아리실 등을 새롭게 단장했다. 1층 교보문고 방향 출입구에는 학교 홍보·행사 공유 용도로 대형 LED가 새로 생겼다. 또한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공차 방향 2층 외부 공간 2곳은 탁자와 벤치 등을 구비한 야외 테라스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용도의 공간 구성에 더불어 노후 시설 개선도 이뤄졌다. 76개의 동아리실, 소·대형 연습실의 냉난방기와 조명이 교체돼 자치 활동 환경이 개선됐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계약 체결



경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사업의 본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한 병원 조성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시흥시는 최근 조달청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의 본공사 계약이 최종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병원 건립 사업의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병원 건립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총사업비 약 5872억원을 투입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건축연면적 11만2천896㎡, 8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내과·외과 등 27개 진료과와 암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 등 6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문자녀 서울대 탐방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총동창회는 동문 자녀들에게 대학 생활과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동기와 미래 설계 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일시 : 8월 5일(수) 오전 9시~오후 6시
- 장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75동
- 참석 대상 : 동문 중학생 자녀 50명(선착순)
- 프로그램 : 진로 특강, 서울대 주요 시설 탐방, 재학생 멘토와 만남 등 (식사 제공)
- 참가비 : 무료
- 참가 문의 : 02-879-8204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 2026.6.16.-7.15

- 회 장 회비 권영걸(69응미)
- 부회장회비
곽병두(84산미) 권대훈(90조소) 김선학(83응미) 김유숙(87서양)
김춘수(77회화) 김태곤(86조소) 나성숙(71응미) 박혜령(74회화)
방광일(74응미) 서명덕(71응미) 안필연(80조소) 이기조(81응미)
이부연(71응미) 이해민(74응미) 정희균(85공예) 한석란(71조소)
- 이 사 회비
권동현(90조소) 곽순화(72응미) 김유주(80응미) 민수정(82회화)
박덕실(81회화) 신현경(74회화) 최영인(85공예)
- 일 반 회비
곽준희(94공예) 김상규(10디자인) 김성진(11공예) 임민영(석17미경)
박부미(80응미) 성소민(15동양) 조창환(86조소) 주진석(17서양)
함미애(81회화) 현해리(08동양) 홍혜진(96공예) 황시원(16디자인)
- 평 생 회비
강영주(69응미) 김자민(19동양) 김희자(66회화) 백윤주(17디자인)
오병욱(78회화) 이선원(75회화) 홍승혜(78회화)
- 광고후원금
이영선(갤러리PaL)=30만원 채혜선(82응미)=30만원
안영나(80회화) 20만원
※지난75호 58학번=30만원은 68학번=3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지금 납부해주세요~!!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연회비 5만원을 내시면

- 동창회가 돌아갑니다
- 여러분의 소식이 알려집니다
- 경조사시 축하근조기가 갑니다
- 전시 및 행사 참여가 많아집니다
- 작품판매 기회가 늘어납니다
- 동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 작품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 재학생 후배들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후원금을 내시면

- 여러분의 이름으로
- 학생회가 행사지원을 받습니다
- 야작하는 재학생 후배들이 야식을 받습니다
- 재학생 후배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 모교에 필요한 사항이 지원됩니다
- S-갤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이 활발해집니다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는 동창회의 원동력입니다.

[연회비] 회원 5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3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후원금] 100만원 이상 후원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혜주(69회화) 동문 별세

이혜주(중앙대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7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모교 응용미술과 및 동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뒤 미국에서 1983년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대학원에서 섬유예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국전 특선 및 주요 공모전에서 예술적 두각을 나타냈다. 1984년 주한 미국문화원초대전을 시작으로 버클리 퍼시픽, 베이진갤러리,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뒤셀도르프, 마드리드 등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또한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힘쓰다가, 퇴임 후에는 지속가능과학회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정책개발과 사회적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속가능과학상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 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 · 단체 ·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어지러이 푸르른...필묵의 귀환 이열모(53회화/1933~2016)

이열모 동문의 작고 10주기를 기념해 인천시립박물관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증특별전 ‘어지러이 푸르른...필묵의 귀환’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유족들이 기증한 작품과 유품 등 총 362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열모 동문의 예술세계와 생애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이동문은 10세 때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이주해 성장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이후 모교에 진학해 본격적인 화업의 길에 들어섰다. 졸업 후 미국 워싱턴 유학을 통해 서구 현대미술을 접한 그는 한국적 정서를 담은 산수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국의 산하



를 직접 찾아다니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국전 문공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국전 추천작가와 초대 작가로 활동했으며, 경희대와 성균관대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특히 그는 현장에서 직접 먹과 붓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독창적인 ‘필묵사생’ 기법을 선보이며 한국 동양화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전시장에는 화가가 실제 사용했던 스케치북과 벼루, 붓받침, 안료, 인장 등과 아카이브 자료도 공개됐다. 아울러 스승인 장우성과 노수현, 동료 화가 이영찬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예술적 교류와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세중조각상 수상 홍순모(68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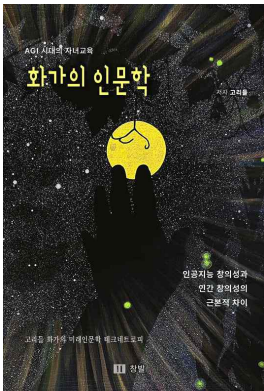
홍순모 동문이 김세중기념사업회(이사장 김녕)가 주최하는 ‘2026년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24일 김세중미술관에서 열렸다. 수상자 홍동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온 한국적 정서의 현대적 승화와 매체의 경계를 허무는 끊임없는 실험성을 보여주어 왔다. 김세중조각상은 김세중(46조소/1928~1986) 동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7년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조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있는 작가를 선정하며 한국 조각계의 발전에 기여했다. 올해까지 조각상 수상자 42명, 청년조각상 수상자 44명, 한국미술 저작·출판상 수상자 28명 등 총 114



명을 선정했다. 홍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 후 목포대학교 교수, 무등 미술대전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가나화랑 전속작가, 파리 Cite International Arts 선정작가이다. 한편 김세중기념사업회는 1987년 설립이후 2023년까지 김세중 동문의 부인(김남조/1927~2023)이 이사장직을 맡았고, 현재 장남(김녕)이 이사장이며, 2017년 고인의 자택 터에 김세중미술관을 건립해 운영 중이다.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 1회 졸업생으로 모교 학장 및 교수, 국립현대미술관 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화문의 ‘충무공이순신장군상’이 대표 작품이다.

화가의 인문학 고영훈(90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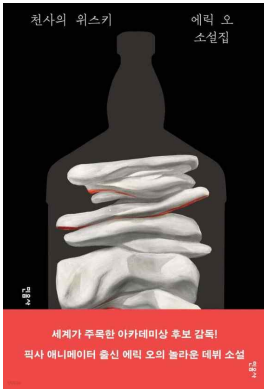
화가이자 인문학 저자 고리들(Core Riddle/고영훈) 동문이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종로구 크레디아클래식클럽 STUDIO에서 저서 ‘화가의 인문학 : AGI 시대의 자녀교육’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계기로 자본주의 여파와 산업문명의 유산을 돌아보고, AGI(인공일반지능) 시대에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동문은 그의 저서 『화가의 인



문학』을 통해 “테크네트로피”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풍류 철학”으로 그려낸 미래 문명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출판 기념회를 넘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과학 발전, 기술 개발로 형성된 약 250년간의 현대 문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기획되었다. 또한 고동문의 연계전시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경복궁 인근에 있는 서촌갤러리에서 열렸다.

천사의 위스키 오세형(에릭오/02서양)

에릭 오 동문이 지난 6월 17일 소설집 ‘천사의 위스키’를 발간했다. 이번 책은 소설에 그치지 않고 음악으로도 확장한다. 각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9곡의 연주 앨범이 함께 공개되며, 하나의 이야기가 문학과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 언어로 확장되는 독특한 프로젝트다. 오동문은 이번 소설집에서 천사, 거북, 연어 같은 비현실적 이미지와 아홉 편의 서사를 겹쳐 인간의 불안과 욕망, 정체성의 균열을 짚는다. 소설집에 실린 인물들은



모두 일상에서 한발 비껴선 자리에 서 있다.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기쁨이 증발한 상태, '반우울'의 감각이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졸업후 UCLA 영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픽사스튜디오에 합류해 '몬스터 대학교', '인사이드 아웃', '도리를 찾아서' 등에 참여했고, 단편 애니메이션 '오페라'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올랐다.

장두건미술상 수상 이겨레(06서양)

이겨레 동문이 지난 6월 5일 포항시립미술관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서 '제22회 장두건미술상'을 수상하였다. 이동문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한 시대를 성실하게 마주하셨던 장두건 작가님의 태도를 이어받아 역사의 흔적과 동시대가 마주한 변화의 흐름을 꾸준히 기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수상자로 선정된 이동문은 선천성 백내장 수술 후유증에 따른 개인적인 시각 경험의 한계를 조형적, 매체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에서



출발해 이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모교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 졸업후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시각예술프로그램, 울산 모하창작스튜디오, 아서스레벤 국제여름레지던시 등의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Crossing', '한밤의 긴 이야기' 등 개인전과 서울대미술관, 포스코미술관, 독일 라이프치히 베어크샤우, 독일 아서스레벤 베슈테혼파크, 소다미술관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키비주얼 디자인 공모전 1위 권정륜(22석사졸 디자인)

권정륜 동문이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서울포럼 2026 키비주얼 디자인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권동문의 작품 '코어 엔진'은 서울포럼 2026의 공식 키비주얼로 선정되어 주요 온·오프라인 홍보물과 행사 현장, 디지털 콘텐츠 등에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27일 개막한 서울포럼 2026의 주제인 '지능을 넘어, 산업의 새 엔진으로(New Core, New Industry)'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공식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동문은 “기존 서울포럼 키비주얼의 블루 기반 기술 이미지를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 보다 구조적이고 확장된 그래픽 언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면서 “시가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중심 광점과 곡선 흐름, 파동형 라인 구조를 통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동문 인터뷰

신정식(54회화)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고,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 후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출품하면서 다섯 차례 추상화로 입선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악이 주는 감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술로 표현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제 작품 활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 안식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도덕적인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술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예술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

초기에는 추상화를 중심으로 작업했습니다. 당시에는 추상미술이 제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 합창」인데, 이 작품을 위해 헨델의 「메시아」 합창곡을 수백 번 들으며 음악을 회화로 표현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의 감동을 색과 형태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당시 제 작품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상미술은 일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구상화와 문인화, 사군자 작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작품은 아름다움을 넘어 도덕성과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예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 소, 독수리, 부엉이 같은 동물을 비롯해 병풍과 문인화, 서예 작품도 많이 작업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품을 판매해 생활비와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모교졸업 후 활동에 대해

화가로 활동하며 삼육재단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삼육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술뿐 아니라 서예와 한문, 사군자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특히 당시 학교 교육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군자를 정규 미술 수업으로 지도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작품활동을 계속하면서 약 700평 규모의 농장을 가꾸었고, 국가 평생교육기관에서 30년 동안 평생교육 강의를 했습니다.

또 정치인과 교육자,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친필 작품을 써 주며 예술을 통해 삶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일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글씨와 선교 100주년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 서예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교장을 역임하셨는데, 교육자의 길은 어땠는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법에 나오는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미술뿐 아니라 서예와 한문, 사군자를 가르쳤습니다. 사군자

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인성과 품격을 기르는 '신사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장은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직접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장 임명장도 직접 붓글씨와 사군자를 그려 부채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이 크게 기뻐했고,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미술관 이야기

저는 작업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동양적 정신,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예술 철학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 예술 철학을 미술관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후배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관도 교육과 나눔의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한국적인 미와 정신,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예술을 통해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사와 평생교육도 대부분 정리했고, 현재는 작품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과 작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후배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활동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한국적인 미와 교육적 가치를 담은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후배 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술에는 정답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 방식이든 자신만의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작가 혼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인생관을 바꾸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동양적 정신,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선후배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예술가로 성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정식 동문은 1934년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태어났으며, 모교 회화과(동양화전공)와 경희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그의 모교인 온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죽산중·상고, 아산중·농예고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신동문은 서울삼육고 교감과 대전삼육중 교장을 역임하고 1999년 서울삼육중 교장으로 은퇴한 후 한남대와 청암예술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썼다. (인터뷰/배세나 편집국장)

장발(루도비쿠)전 장발(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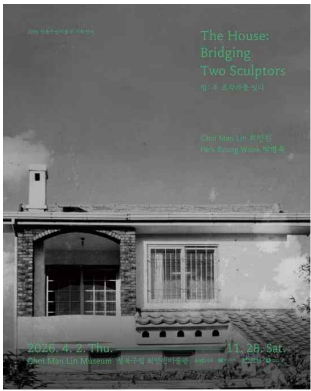
모교 초대학장 장발(루도비쿠: 1901-2001) 교수의 전시가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한림대학교 박물관 일송기념도서관 1층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성화와 동서양의 조형성이 어우러진 추상화를 함께 선보인다. 장발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창립 멤버이며 초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장발은 모교에서 1959년까지 재직하면서 후학을 지도했고, 대한민국 미술교육계와



국내 미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제2공화국 총리를 지낸 형 장면(1899-1966)이 5.16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뒤에 장발은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머무르며 본인의 새로운 추상미술을 전개하게 된다. 이후 장발은 미국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리하여 화가로서 장발의 작품 세계는 한국에서의 실물 위주 구상 시기와 1960년 이후 미국에서의 추상 시기로 나뉘진다.

집:두 조각가를 잇다 최만린(54조소)·박병욱(58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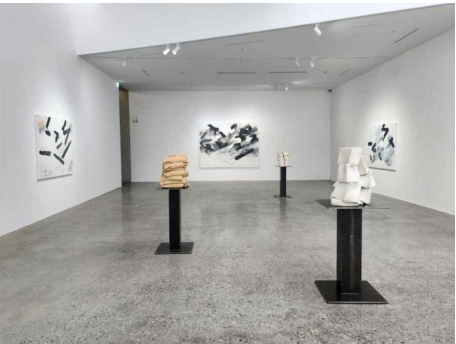
최만린(1935-2020), 박병욱(1939-2010) 동문의 전시 '집:두 조각가를 잇다'가 지난 4월 2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최만린미술관에서 열린다. 정릉집(정릉3동 710-4번지)을 출발점으로, 이 공간에서 작업한 최만린 동문과 1980년부터 집을 이어받아 거주한 박병욱 동문의 작업세계를 함께 조망한다. 특히 박동문은 1996년 병환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된 이후에도 왼손으로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 시기의 종이 점토(Papier-mâché) 작품과



드로잉, 아카이브가 함께 공개된다. 이와 함께 최동문의 아들 최아사 건축가가 제자들과 함께 재현한 정릉집 모형과 사진, 도면, 인터뷰 영상 등도 선보여, 집의 구조와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경민 학예연구사는 "동일한 장소를 공유한 두 조각가의 창작 과정을 통해 '작가-공간-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조각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생성의 장(場) 이강소(61회화)

이강소 동문의 초대전 '생성의 장(場)'이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리안갤러리 대구에서 열렸다. 지난해 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이어 올해 초 대구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선보인 한국 실험미술의 거장 이강소 동문이 지난 전시에서 회화·조각·판화·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울러 반세기 넘게 이어온 작품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줬다면, 이번 전시는 그가 오랫동안 사유해온 '생성'의 구조를 시각화한 'becoming(되어



감') 작업의 신작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생성의 장'을 주제로 직접적인 서사를 배제하고 자연의 형세나 물의 흐름 같은 잔상으로 채워져 관람자의 시선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화와 조각 20여 점을 선보였다. 이동문은 경상대 교수, 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다.

같은 길 다른 시선 손문자·김지명·안말환·이종숙

손문자(62응미) · 김지명(69회화) · 안말환(76회화) · 이종숙(82회화) 동문의 '같은 길 다른 시선'이 지난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전시 제목 '같은 길 다른 시선'은 이번 전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하나의 공통된 출발점 위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예술세계가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학교, 같은 시대의 예술적 배경을 공유하면서도 작가들은 각자 자신만의 질문과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손문자 동문은 정삼각형으로 표현되는 조형세계를 통해 신앙과 예술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김지명 동문은 자연에서 받은 감동을 채색의 세계로 풀어낸다.



안말환 동문은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 삶의 다양한 형태를 탐구해온 작가다. 이종숙 동문은 자연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손문자 동문은 파리 그랑쇼미에르 수학, 홍익대 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한 후 개인전 25회, KIAF 8회, 단체전 150여 회, 김지명 동문은 뉴욕 L.I.Univ. M.F.A를 졸업하고 개인전 10여 회, 아트페어 20여 회, 단체전 100여 회, 안말환 동문은 개인전 45회, 단체전 600여 회. 이종숙 동문은 개인전 10회, 아트페어 20여 회, 단체전 200여 회 참여했다.

K-아트 2026 김춘옥(64회화) · 황인기(71회화)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특별전 'K-아트 2026: 전통을 번역하다, 미래를 상상하다(K-Art 2026: Translating Tradition, Imagining the Future)'가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멕시코 국립세계문화박물관에서 열린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문화와 동시대 미술이 만나는 문화외교의 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멕시코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이 협력하는 이번 전시에는 김춘옥, 황인기 동문과 권기수, 김창겸, 김선두, 박영근, 양대원, 이음,



지오최, 황선태 등 10명의 한국 전통문화를 미디어아트 등 현대적 기법으로 풀어낸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와 함께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의 역사적 건축 공간을 활용한 특별 아트 프린트전도 마련됐다. 조폐국 건물에 김춘옥 동문과 권기수, 양대원, 김범수 등 작가 4인의 대표작 16점을 대형 이미지로 설치해 한국 현대미술과 멕시코의 역사적 공간이 만나는 특별한 풍경을 연출했다.

Afrer Gesture 오수환(65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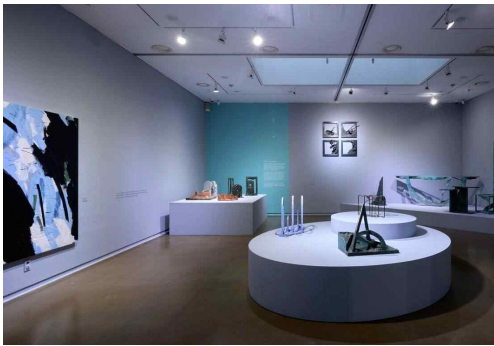
오수환 동문의 개인전 <Afrer Gesture>가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청담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그린 뒤에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의 회화는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그리는 행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 주목한다. 이 전시는 작가의 대표 연작인 <적막>과 <대화>를 중심으로, 미공개 대작을 포함한 주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형상의 잔여에서 출발해 기호와 의미가 사라지고, 끝내 필획만이 남게 되는 과정을 따라 전개된다. 더 이상 무엇



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 화면, 그러나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상태, 이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반복된 행위가 스스로를 비워내며 도달한 자리, 그린 뒤에 비로소 드러나는 회화의 상태를 마주하는 자리이다. 모교 졸업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오동문은 서울여자대 서양화과 교수를 역임했다.

정보원: 열린이름(Names Left Over) 정보원(65조소)

정보원 동문의 개인전 '정보원: 열린 이름(Names Left Open)'이 지난 7월 2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전은 조각과 건축의 경계를 넘나들며 50여 년간 구축해온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첫 공립미술관 개인전이다. 정보원 동문은 조각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간과 빛, 소리, 인간의 경험이 만나는 관계의 장으로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는 작가의 작업을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여 그 흐름을 따라간다. 구조물 사이의



간장과 관계를 탐구한 초기의 집합 구성에서 출발해,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작업들을 거쳐,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구축한 형태를 다시 물질로 구현한 최근작까지 50여 년에 걸친 조형 언어의 변화와 확장을 조망한다. 한편 성북구립미술관은 2019년 시작한 공공조각 프로젝트로 정보원의 신작 공공조각 '산책'을 오는 9월 거리갤러리를 통해 공개한다.

괴산의 그림쟁이: 황창배 황창배(66회화/1947-2001)

황창배 동문의 기획전 '괴산의 그림쟁이 : 황창배'가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됐다. 황창배 동문이 작고하기 전 충북 괴산 작업실에서 보낸 마지막 10년(1990~2000)의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다루는 이번 전시는 독자적 예술성을 보여주는 성화 작품과 '자여'시리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78년 국전에서 한국화 분야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알려진 황동문은 생전 익숙한 형식과 관습에 머무



르기를 거부하며 한국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재료와 기법, 조형 언어의 경계를 허물었던 그는 한지 위에 수묵뿐만 아니라 당시 서양화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아크릴물감, 유성펜, 안료, 연필 등 실험적 재료들을 주저 없이 혼합했다. 더 나아가 재료의 제약을 넘어 종이를 굵고 붙이는 등 부조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도 선보였다.

흐르고 쌓이는 김정현(65회화)

경기도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장품 특별기획전 '흐르고 쌓이는'을 열었다. '예술은 () 시작하는가', '우리는 () 살아가는가', '우리는 () 기억하는가', '예술은 () 함께하는가', '나는 () 실천하는가'의 5개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마지막 섹션에서 2024년 작품 54점을 기증한 민중미술작가 김정현 동문의 작업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했다. 괄호 안은 관람객의 사유를 위해 비워둬, 예술의 형식적 실험부터 일상과 노동, 기억과 역사, 사회적 실천



까지 동시대 예술의 질문과 관람객 응답을 모색했다. 김동문은 1973년 오윤, 권순철 등 동기들과 '잡초'전을 기획했고 1979년 최초의 민중미술단체 '현실과 발언'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후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전국민족미술연합 공동의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서울문화재단과 416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정원일과 그리기 백순실(70회화)

백순실 동문의 개인전 '정원일과 그리기'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블루메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리기와 정원일의 공통된 시간 감각과 몸의 언어를 통해 백순실 동문의 작업을 새롭게 읽는 시도로서, 1980년대 말부터 최근작까지 35점을 소개한다. 백동문은 40여 년간 동다송 연작을 이어왔다. 초의선사가 기록한 한국 차 문화 정신을 화면의 언어로 번역해온 그의 작업은 차를 마시는 일간의 행위로부터 출발한다. 먹과 화산석, 과슈와 매트 미디어, 해먹 등 재료를 수십 번 바르



고 쌓고 말리며 대지의 생명력을 담은 두터운 화면을 만들어온 작가에게, 동다송은 차에 관한 그림이 아니라 시간과 절제, 바탕에 대한 회화적 사유의 기록이다. 차원이 물에 스미듯, 안료가 종이에 얼룩을 내듯, 재료가 시간을 지나 화면이 되는 과정은 정원사가 흙과 계절에 기대어 정원을 만드는 방식과 닮아있다. 한편 배동문은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개인전 43회와 여러 단체전에 참가했다.

강요배:시간을 품다 강요배(72회화)

강요배 동문의 '강요배:시간을 품다'가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민주·인권·평화전 초대작가인 강요배 동문의 대규모 회고전이며 1992년 귀향 후 풍경 연작과 최근작까지 60여 년 예술세계를 선보인다. 특히 강동문의 삶과 녹록지 않은 예술 시간이 오롯이 담겼다. 강동문은 "첫 개인전 50주년 기념 전시를 광주에서 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관람객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기



대되는 한편 가슴이 뚫린다"고 전했다. 1952년 제주에서 태어난 그에게 고향은 늘 안쓰러움과 경외, 슬픔의 대상이었다. 43의 역사와 침묵, 강요는 고향의 바람과 풍토로 다져진 그의 예술적 DNA가 됐다.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80년대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하며 군사독재 현실을 자신만의 필선으로 포착했다.

4인4색展 김병중(74회화) 최병국(77회화) 박재만(83동양)

인천 예술계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성을 조명하는 '인천 아트 레거시 4인4색展'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KMJ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김병중, 최병국, 박재만 동문과 명노선 작가가 참여했다. 김병중 동문은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한 강렬한 색채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최병국 동문은 수묵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한편 박재만 동문은 동양적 사유와 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으며, 명노선 작가는 자연의 빛과 계절의 변화를 담아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대표작과 최근 작품을 함께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서로 다른 예술적 개성과 창작 철학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었다.

더블 블라인드 공성훈(83서양/196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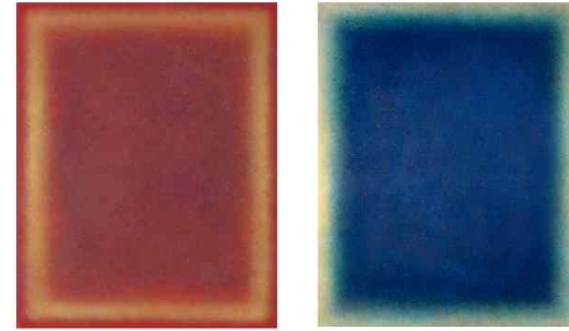
공성훈 동문의 작고 5주기를 맞아 초기 실험 작업을 조명하는 전시 '더블 블라인드'(Double Blind)가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려 풍경화가로 알려진 작가의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기록 영상, 회로도, 콜라주 드로잉, 구상 스케치, 설치 매뉴얼 등을 함께 선보인다. 공동문은 작가노트에서 "기계 시대의 예술은 '기계 시대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TV의 발광하는 색채, 작동하는 기계의 단조로운 소음, 메커트로닉스의 경이로운 정확성과 자동성



등을 기계 시대의 감수성으로 꼽았다. 공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서울산업대 전자공학과, 서울대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자연과학적 태도와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치, 개념미술, 사진,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상의 모습을 소재로 한 풍경화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2013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8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다.

빛의 현존 Light's Presence 박현주(87서양)

빛과 색, 물질의 관계를 탐구해 온 작가 박현주 동문의 개인전 '빛의 현존'(Light's Presence)이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영은미술관에서 열린다. 금박을 활용한 반입체 작업 '이너 라이트'(Inner Light) 연작부터 최근 평면 회화 작업 '빛 그림' 연작까지 빛과 색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자리다. 다양한 재료의 중첩과 축적을 통해 구축한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는 오랜 시간 빛과 색, 물질



의 관계를 탐구하며 회화의 물질성과 정신성을 아우르는 조형 언어를 구축해 왔다.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 대학원과 일본 도쿄예술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영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Art of Travel 채혜선(82응미)·노보(강정은/12서양)

채혜선, 노보 동문과 이선주 작가가 참여하는 여행을 테마로 하는 기획전 'Art of Travel'이 지난 7월 9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메타갤러리 라루나' 청담동 전시관과 온라인 전시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채혜선 동문은 17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이며, 노보 동문은 22점의 회화 작품을 출품했고, 이선주 작가는 10여점의 사진 작품을 설치했다. 채혜선 동문은 여행을 떠나는 심리적 이유와 반복성에 주목한다. 그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다



시 여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보 동문은 여행을 낯선 존재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그는 일상에서 영감을 주는 오브제를 자신의 공간으로 가져와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선주 작가는 여행을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생각, 여행(旅行)의 '여(旅)'를 '여자 여(女)'로 바꾸고, 여행을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과 감정을 돌아보는 행위로 삼는다.

후원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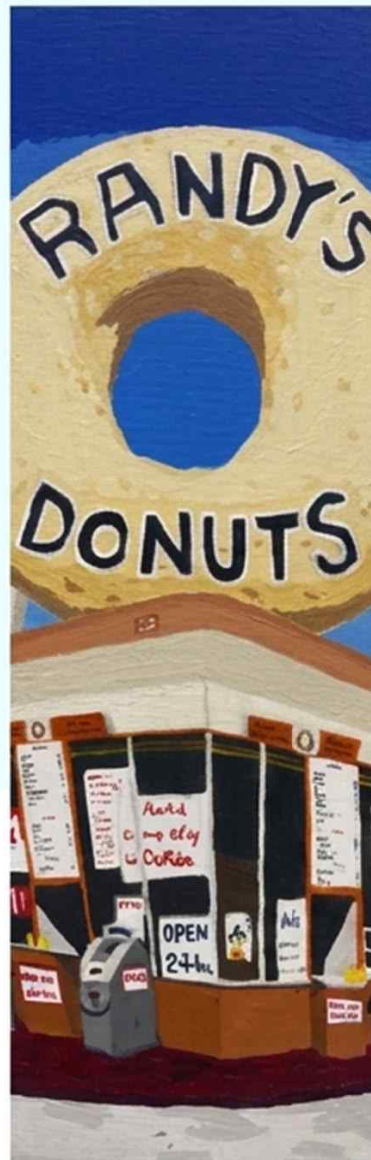
노보 | 이선주 | 채혜선
EXHIBITION

ART OF TRAVEL

여행의 이유

26.07.09-09.19
메타갤러리 라루나

청담동 도산대로 85길 41 메타갤러리 라루나
41, Dosan-daero 85-gil, Gangnam-gu, Seoul
p. 010.8793.7380



Nov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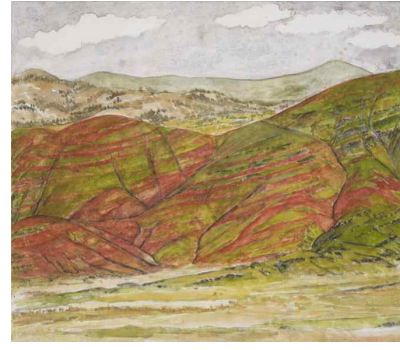
Lee Sunjoo



Chae Hyesun

기억과 상상 속 풍경 너머 박소영(92동양)

박소영 동문의 초대전 '기억과 상상 속 풍경 너머'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5일까지 종로구 사이아트스페이스 더플로우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박동문은 그동안 발표해 온 자연 안에서의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자연과 벗하여 소요유(逍遙遊)하고자 하는 연계선 상에서 전통 산수화를 재해석한 작업과, 10여 년 전 미국 오리건주에서 사생한 Painted Hills의 풍경을 선보였다. 박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서울대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사학위 취득, Visiting Scholar, Oregon College of Art



& Craft 2019-2026 이후 개인전 16회와 국내외 아트페어 및 단체전 200여회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또한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및 검임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국민대, 서울교육대, 충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대학교미술관(MoA), 경희대학교미술관, 인데코갤러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물관등에 작품이 소장되었다.

붉은 나무 정일영(95서양)

정일영 동문의 초대전 '붉은 나무'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내면과 삶의 태도를 회화적 풍경으로 풀어낸다. 도시의 인물, 추상, 도심의 빛, 자연 등 연작을 선보였던 그는 이번 초대전에서 붉은 나무를 중심으로 북한강과 남한강 풍경을 힘찬 붓질과 색점으로 표현했다. 정동문의 그림 속 나무는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황량한 벌판에서 무언가를 향해 붉은 가슴으로 곳곳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 모



습은 모진 계절을 버티는 나무를 닮았다. 그의 나무는 자연 풍경을 넘어 현실과 치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담는다. 그래서 붉은 나무는 자연풍경의 재현을 넘어 자아와 삶을 돌아보게 한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21회, 단체전 160여회 등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미대동창회 S-미술아카데미에서 아크릴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면이 되기 전 이근민(01서양)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작업해 온 이근민 동문의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Before It Becomes a Scene)'을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PKM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근민 동문이 2023년부터 제작한 높이 약 3m 대형 회화와 드로잉 연작 등 23점의 신작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동문의 회화에 등장하는 근육과 장기, 혈흔의 형상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나와 너,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누구나 지녔지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의 붉고 따뜻한 색조는 피와 살을 향한 작가의 본능인 동시에, 인간과 생명에 대한 메타포이다. 밑그



림 없이 손이 움직임에 따른 자동기술법 (Automatism)으로 완성된 드로잉연작<Refining Hallucinations>는 사회에서 밀려난 원시적이고 불온한 생명체를 펜 선으로 둥글게 감싼다. 이동문은 200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 뉴욕, 파리, 베를린, 말뚝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2016년에는 뉴욕 파이오니아 워크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22년 스페이스K, 마드리드 콜렉션 솔로, 박서보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

히든 위버스 임현경(01동양)

임현경 동문의 초대전 '히든 위버스 Hidden Weavers'이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임동문은 도시의 나무들에 깃든 보이지 않는 돌봄의 흔적을 포착한다. 작가는 보살핌이 세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직관하며, 지지대를 세우고 정성을 더하는 행위가 돌봄과 연대의 지표가 됨을 화면을 통해 조용히 증언한다. 전시 제목 《히든 위버스 Hidden Weavers》에서 'Hidden'은 우리 곁에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손길을, 'Weavers'는 인간과 자연, 사회가 이루는 무수한 접점들의 직조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속도에 매몰된 도시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임동문이 일구어 낸 달빛 아래 정원에서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룬 연대의 온기를 마주하는 사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위장된 시선 최나무(01줄 서양)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활동하는 최나무 작가의 개인전 '위장된 시선 / Before Our Eyes'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전 지소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탐구해온 '침입자들(Intruders)' 시리즈의 두 번째 장이다. 전작이 외부 균열로 인해 무너지는 풍경을 담았다면, 이번 작업은 그 시선을 '안쪽'으로 돌린다. 침입은 산과 숲을 넘어 피부 위로, 그리고 타인과 마주하는 시선의 구조 안으로 스며든다. 인간과 식물,



동물의 경계는 기묘하게 흐트러진다. 이번 전시는 두 번째 챕터로 '침입이 일어난 이후에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징후' 그리고 도깨비불의 연장으로서 '교란되는 시선'에 집중하는 전시로, 첫번째가 전체를 조망했다면 이번에는 내밀한 변화에 집중한다.

Disturbed Pleasure 최수련(석17줄 서양)

최수련 동문의 전시 'Disturbed Pleasure'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WWNN에서 열렸다. 최동문은 동북아시아 고전 이미지의 동시대적 재현에 주목하며 오리엔탈리즘 이미지의 재현과 소비를 비판적·탐미적으로 추적한다. 특히 주류 미감에서 비하되기 쉬운 것들을 재발견하거나 한국·중국의 고전극·영화의 클리셰 이미지들을 저해상도로 수집해 린넨이나 황마 위에 유채의 흔적으로 옮겨내며 '동양풍' 이미지의 효용을 고민한다.



사약 마시는 장면을 그린 <장치>연작은 고전 서사 속 비극과 현실의 압제적 구조를 극적인 도상으로 시각화했다. 홍익대 회화과와 서울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최동문은 개인전으로 '그림 회에 그림 화(갤러리 조선), '무중필사'(산수문화) 등을 열었다. 뮤지엄헤드, 디스위켄드룸, 서울시립미술관, 하이트컬렉션에서 열린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2020년 종근당 예술지상을 수상했다.

7월의 전시



Novo Lee Sunjoo Chae Hyeon

26.07.09 - 09.19

Art of Travel

ART OF TRAVEL

채혜선(82응미) · Novo(12서양) 외

7.9-9.19

메타갤러리 라루나



이망고

인디 프레임

Indieframe

2026.07.04. SAT - 2026.08.02. SUN

인디 프레임

이망고(17서양)

7.4-8.2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신중훈 개인전

KIMCHONGYUNG MUSEUM

2026.7.3-8.23

창작지원작가전

신중훈(13조소)

7.3-8.23

김종영미술관



정보원: 열린 이름

Names Left Open

2026.07.02. - 09.06. 성북구립미술관

열린이름(Names Left Open)

정보원(05디자인)

7.2-9.6

성북구립미술관



어두운 젊은 태양

PCO

어두운 젊은 태양

장순원(79응미)

7.2-7.29

피코 서울



2026.6.25.-7.19. 금호미술관 B1F, KUMHO MUSEUM OF ART

공성훈 개인전 KONG SUNGHUN 더블 블라인드 DOUBLE BLIND

더블 블라인드

공성훈(83서양)

6.25-7.19

금호미술관



Unseen Ground

Unseen Ground

최수양(94조소)

6.24-9.15

엄미술관



빛의 현존

LIGHT'S PRESENCE

HYUNJOO PARK 박현주

Opening Reception: 7.4 3pm

2026. 6.20.-9.6.

빛의현존Light's Presence

박현주(87서양)

6.20-9.6

영은미술관



2026년도 초대전

유학자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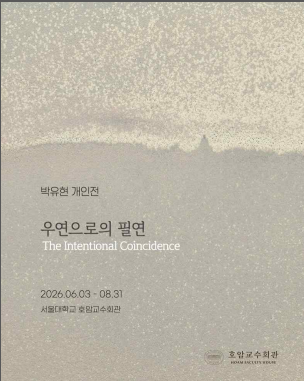
(책 읽는 유학자, 칼을 든 유학자)

유학자의 초상

이성도(74조소)

6.18-8.30

사람박물관얼굴



박유현 개인전

우연으로의 필연

The Intentional Coincidence

2026.06.03 - 08.3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우연으로의 필연

박유현(17서양)

6.3-8.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LEE YONG DEOK

Forming Perception: Validated Space, Filling Presence

2026. 5. 29 -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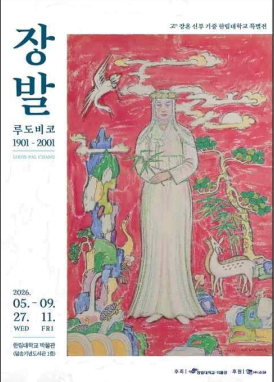
ART PARK

모/습/경/험

이용덕(77조소)

5.29-7.25

아트파크



장발

루도비코

1901 - 2001

장발(루도비코)전

장발(교원)

5.27-9.11

일송기념도서관



지남 박소현

정년기념작품전

지남 박소현

박소현(80회화)

5.21-10.18

정준호갤러리



강화, 강화를 날다

강화, 강화를 날다

이강화(81회화)

5.14-8.30

갤러리Pa_강화



히든위버스

WEAVERS

이든위버스

2026.05.14^{THU} - 07.31^{THU}

히든위버스

임현경(01동양)

5.14-7.31

한원미술관



색유만개

권순형

2026.05.12^{THU} - 08.02^{SUN}

권순형 기증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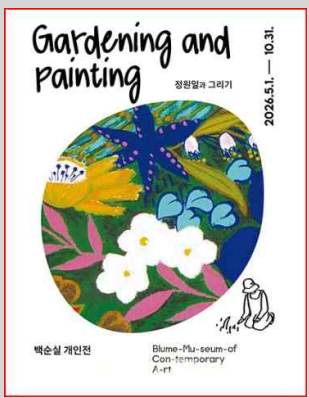
SOONHUNG KWON: RAUCOUS COLOR BLASTS

색유만개

권순형(49응미)

5.12-8.2

서울공예박물관



Gardening and painting

정원일과 그리기

2026.5.1. - 10.31.

백순실 개인전

Blume-Painting of Contemporary Artist

정원일과 그리기

백순실(70회화)

5.1-10.31

블루메미술관



칼로 새겨

기억하겠습니다

이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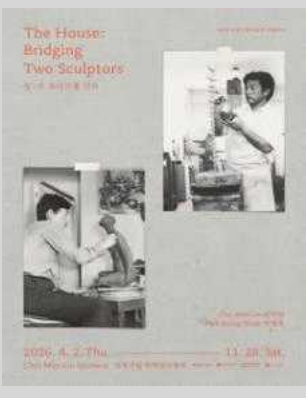
2026.4.14^{THU} - 8.1^{SAT}

칼로 새겨 기억하겠습니다

이성도(74조소)

4.14-8.1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The House: Bridging Two Sculptors

최만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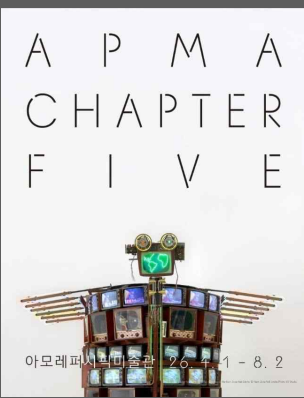
2026.4.2^{THU} - 11.28^{SAT}

집:두 조각가를 잇다

최만린(54조소)

4.2-11.28

최만린미술관



A P M A CHAPTER FIVE

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26.4.1 - 8.2

AMPA, CHAPTER FIVE

양혜규(90조소) 외

4.1-8.2

아모레퍼시픽미술관